

# 8년 만의 최대 '독감 유행'... 방역용품 판매 늘어

모든 연령층 인플루엔자 증가세 약국 마감시간까지 문전성시 이뤄 심야시간 편의점 감기약 판매 급증 "마스크·상비약 구비해 미리 대비"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편의점과 약국에서 감기약을 비롯한 상비약과 마스크 등 방역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집계됐다. 바로 직전 주 31.3명 대비 약 2.4배 증가한 수치로, 2016년 86.2명 이후 8년 만에 전국 독감 발생 최고치다.

연령대별로는 13~18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7~12세, 19~49세 순으로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치료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감기약이 불타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찾은 광주 동구의 한 약국.

이 곳에서는 병원을 들렀다가 약을 타러 온 환자와 약국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해열제를 구매하기 위한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독감 증세를 보여 병원에 들렀다가 약을 처방 받으러 왔다는 정희운(32)씨는

"몸이 안 좋아서 독감이 싫어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갔는데 대기가 너무 많아 2시간이 넘게 기다리다 겨우 진료를 받고 나왔다"며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약국에도 사람이 엄청 많다. 이왕 약국에 온 김에 마스크 등 방역용품도 같이 사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광주 서구 한 약국은 독감 유행 이후 손님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타이레놀 등의 유명 감기약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당 약국 담당자는 "감기약을 찾는 사람이 많아 최근에 감기약을 추가로 들여왔으나 벌써 바닥을 보여 추가 입고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감기약이 종류별로 판매되고 있는데,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최근 며칠 사이에 평소보다 20~30% 이상은(감기약) 판매량이 늘었다"며 "아직 증상이 없는 시민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구매하러 방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을 비롯한 상비약과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같은 날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은 상비약을 구매하는 손님들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 주로 판매량이 많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종합감기약 '판콜A' 등의 상비약을 기존보다 많이 주문해 판매대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였다.

편의점 관계자는 "약국 문이 닫은 심야 시간에 시민분들이 상비약을 자주 찾는 편이다. 상비약이다 보니 한 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두세개씩 대량으로 구매하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평소보다 판매량이 4~5배 가량 증가했다"며 "상비약과 함께 마스크도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편의점의 경우 독감 유행 이후 판매 진열장에 놓인 마스크가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일부 상품은 품절된 상태였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요새 감기약이 있다고 묻는 손님들이 엄청 많아졌다"며 "상비약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손님도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맘카페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이 증상 해당되면 독감이에요", "감기약 미리 사두는 게 좋을까요" 등 독감과 관련된 게시글과 관련 정보를 담은 전문가들의 답변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 수

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준배 광주시약사회장은 "독감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장한다"며 "실내 활동 시에는 손 자주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의 개인 방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이기자 sangajeong@jnilbo.com



북구, 골목길 제설작업  
광주지역에 6.4cm의 적설량을 기록한 8일 광주 북구 관내 이면도로에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며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 노사민정협 "GGM 노사 상생·협력" 촉구

새해 1차 회의서 입장문 발표 "중재조정위서 합리적 해결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문제와 관련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업 범시민적 역량 결집,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적 합의 도출, 실업 및 고용 대책, 노사민정 협력방안 등을 심의·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GGM 노사가 충분히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노사가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결정 및 해석, 협의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노사민정협회의의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어 "최근 노사 대화가 중단되고 대내외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

는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GGM 노사에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시민정협의회는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모델이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이다"며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주시민 모두의 경제적 희망과 연결돼 있는 만큼 GGM 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

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은 개인이 아닌 광주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며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자세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더 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재조정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만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 협력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